

광주시, 5대 신활력벨트 '서창 감성조망대'로 본격 가동

옛 서창포구에 조성 10월1일 개장... 익사이팅벨트 첫 성과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확정... 대규모 융복합단지 본격화
광주역·효천역 벨트, 창업·교통·문화·도시재생 결합 시너지



광주시가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5대 신활력벨트 조성' 사업이 가지적 성과를 내며 '활력이 넘치는 풀뿌리도시 광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서창 감성조망대 10월1일 개장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투자심사 통과 ▲광주역 빛고을창업스테이션(스테이지) 개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마무리 단계 진입 등 주요 사업이 속속 속도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천 생태힐링벨트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과 연계해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여가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광주천 상무대교~광천1교 자전거 도로(6.7km)와 광주기아랜드퍼니스필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까지 연결되는 보행·자전거도로 신설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초 개방된 광주공원 앞 '청춘빛포차광장'에서는 청춘문화누리터(청춘버스킹)가 매주 토요일 진행돼 시민들이 걷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백산근린공원 일대에서는 발산생태축복원사업이 진행돼 훼손된 녹지와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광주천과 연결된 시민휴식공간으로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KTX 투자선도지구 사업 본격화

그동안 담보상태에 있던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8월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 교통·경제권 조성을 앞당기게 될 전망이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지역특화지원 등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사업으로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는 광산구 송정동, 장터동, 송촌동 등 송정역 일원 55만 8158㎡(약17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5943억원(LH민자)을 투자해 주거·산업·연구·업무 등을 포괄하는 융복합단지를 조성하

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광주송정역 증축공사'는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던 중 6번째로 진행된 입찰에 2개 업체가 참여해 적격심사를 거쳐 9월말 최종낙찰자와 계약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공사는 역사면적을 5700㎡에서 1만1000㎡로 2배 가량 확대하고 넓은 대합실과 승강장, 편의시설 등을 개선해 호남의 대표 관문역으로서 위상과 머무르고 싶은 명소를 탈바꿈을 기대하고 있다.

◇ '광주역 창업벨트' 호남권 최대 규모 창업밸리 본격 가동

광주역 일원에 조성된 빛고을창업스테이션(스테이지)은 총 350억원을 들여 연면적 8950㎡ 규모로 건립돼 지난 6월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30개 기업과 투자기관이 입주해 창업·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통합 창업플랫폼으로 운영 중이다.

또 2019년부터 추진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주요 기반시설의 준공을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푸른이음센터, 문화마당 등 기반시설이 시민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 광주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CGI센터 등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과 기업 유치에 활발

하다.
지난해 출범한 'GCC사관학교'는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실감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올해는 최종 140명의 제2기 교육생을 선발해 실무교육을 받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콘텐츠기업을 광주에 유치해 지역청년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기업유치 활동도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17개 콘텐츠 기업이 광주에 동지를 들어 220여 명의 지역 인재가 신규 채용됐다.

지난 2023년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도 총사업비 1560억원 규모로 추진돼 모빌리티 복합허브센터와 실감콘텐츠 테마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후 2027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5대 신활력벨트는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통·창업·문화·도시재생이 결합된 시너지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기자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확 넓어진다

광주시 22일 기공식... 25년만에 4차로→6~8차로 확장 착공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이 기존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된다. 이는 1986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25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도로 확장 공사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국립광주박물관 주차장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동광주IC~광산IC 구간은 일일 평균 약 14만대가 통행하는 광주 외곽 주요 도로로, 적정 통행량(5만1300대)의 약 2.7배에 달하는 차량이 몰리는 전국 최악의 교통정체 구간 중 한 곳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확장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는 총 7934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등 중앙정부 및 한국도로공사 부담 50%, 광주시 지방비 부담 50%로 재원을 분담하며, 한국도로공사 사업 시행한다.

사업 대상은 총 연장 11.2km 구간으로, 기존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방음터널 12개소와 교량 20개소가 신설되며 노후도로 구조물과 방음벽 등 기존 시설물도 전면 개량될 예정이다.

추진 일정은 2025년 9월 용지 보상과 공사에 들어가,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교통혼잡 해소뿐 아니라 교통소음 저감, 안전성 향상, 주민편의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월1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준 시민들과 협력해준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필 기자

전남도-쿠팡-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확대 맞춘

안정적 판로·마케팅·우수상품 발굴 등 상생협력 기반 강화

전라남도도는 22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쿠팡, 전남도상인연합회와 함께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의 스마트화와 온라인 유통망 확충으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민병기 쿠팡(주) 부사장, 한승주 전남도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쿠팡 및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쿠팡(주)는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마케팅 협력에 나선다. 전남도상인연합회는 우수 상품 발굴과 기관 간 정보교류를 추진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과 연계해 '2025년 추석 맞이 특별할인 행사'가 추진된다. 쿠팡 홈페이지 상생기획관 '착한상점'에 도내 7개 전통시장 42개 상점이 입점해 추석 명절을 맞아 전남의 우수 특산품과 전통시장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해 2억 원(도·시군 각 50%)을 투입해 보성향토시장, 별교시장, 해남 매일시장, 해남읍5일시장, 무안전통시장, 굴비골영광시장, 영광터미널시장 등 4개 군 7개 시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전통시장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상품 디자인 및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며, 전남상인연합회가 전담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인 기자

'김치 종주도시 광주', 김치여행상품 선보인다

김치타운·양동시장 등 체험형 관광콘텐츠 당일·1박2일형 출시

10월말 김치축제 연계 특별상품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대

계해 운영된다. 특히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열리는 광주김치축제 기간에는 축제 일정과 연계한 특별상품도 추가로 선보인다.

상품은 당일형과 1박2일형으로 나눠 운영되며, 참가자에게는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반지김치 담그기 체험 ▲김치벨트 가이드북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